

2018 호루라기상(언론상2)

- 사학비리 보도한 CBS·노컷뉴스 김영태 선임기자



○ 수상자 소감

올해 보도에 집중한 사안은 사학비리와 공익제보자 문제였다.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지만, 보도 결과는 미진할 뿐이다. 이들 사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여론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절감한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실종’ 과 ‘서울미술고 등록금 불법과다 징수 및 공익제보 교사 탄압’ 연속기획 보도는 사회적 반향과 당국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만큼의 개선조치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과인 전면 도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교육 목적외 원비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은 자유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미술고에 대해 수업료 자율학교 지정 취소는 이뤄졌지만, 이 학교 공익제보자 정미현 교사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와 파면이 반복되고 있다.



사학비리로 이름난 동구학원 역시 의식 있는 교원들에 대한 해고 남발은 현재진행형이다. 앞서 학교 비리를 공익제보한 안중훈 교사는 수년에 걸쳐 직위해제 파면을 반복적으로 당했었다. 임시이사 파견 이후 임용되었던 권대익 교장, 오환태 교감 역시 그릇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복귀한 구 재단에 의해 직위해제와 파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의로운 일을 하다 불이익을 당한 공직제보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을 받아도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도하자 교육부는 소청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그나마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20여 회에 이르는 ‘서울미술고 수업료 자율학교 불법 지정’ 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 결정을 하고, 감사가 진행 중인 점도 유의미한 성과라 할 수 있다.

CBS는 50회에 걸쳐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속기획 ‘고삐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은 학교’ 라는 사실을 환기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학원이 아닌, 학교로서 공적 역할과 국가관리가 필
 널리 인식시켰다. 지금은 국가지원금의 유용을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여의치 않지만, 정치적 상황이 좋아지면 이 또한 이뤄지리라고 본다.

비리사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성 질서는 강고하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익제보자들의 힘은 미약하다. 그럼에도 용기 있는 제보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보도가 있기에 사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준 취재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도가 흔들림 없이 나가도록 지지해준 CBS 보도국에 감사드린다.